

WBC 한국야구 '도쿄의 기적'을 썼다

9일 호주 7-2로 꺾고 17년 만에 8강 진출... 대만·호주에 최소 실점을 앞서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결선 리그에 진출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4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7-2로 이겼다.

2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대만, 호주와 동률을 이뤘으나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동물 팀간의 대결에서만 따진 실점률에서 한국이 0.1228, 대만과 호주가 0.1296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두 나라를 밀어내고 미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가 WBC에서 조별리그

를 통과한 것은 2009년 준우승 이후 17년 만이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 한국시간 14일 오전 7시30분 D조 1위와 준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호주를 상대로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8강에 오를수 있었다.

이날 선발 라인업은 김도영(KIA 타이거즈·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중견수)~안현민(kt wiz·우익수)~문보경(LG 트윈스·지명타자)~노시환(한화 이글스·1루수)~김주원(NC 다이노스·유격수)~박동원

(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변화를 줬다. 선발 투수는 손주영(LG)이었다.

한국은 2회 안현민이 안타로 출루했고, 문보경이 우중월 투런포를 때려 2-0으로 기선을 잡았다.

3회에도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 다시 문보경의 우중간 2루타로 4-0으로 달아났다.

문보경은 5회 2사 2루에서 다시 펜스를 직접 때리는 좌월 적시타를 날려 5-0을 만드는 타점도 책임졌다. 이날 4타점을 추가한 문보경은 11타점을 기록, 이번 대회 20개 참가국 전체 선수를 통틀어 유일하게 10타점 이상을 올렸다. 호주 로비 클렌디닝이 5회말 한

국의 세 번째 투수 소형준(kt)을 상대로 솔로포를 날려 1-5로 추격했으나 한국은 다시 6회초 2사 3루에서 김도영의 적시타로 6-1을 만들어 8강 진출 가능 점수를 유지했다. 이후 8회말 호주에 적시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줘 6-2가 되면서 한국은 9회초에 반드시 추가점을 올려야 8강에 진출하는 절체절명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 9회초 공격에서 김도영의 볼넷, 이정후의 타구 때 나온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1사 1, 3루 기회를 잡았고 안현민이 외야 희생 플레이를 때려 '벼랑 끝'에서 탈출하고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호주를 7-2로 꺾고 8강 진출이 확정되자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8강 상대,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나

양국 내일 맞대결... 한국 14일 1위와 격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8강 상대가 두 팀으로 좁혀졌다.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론디포파크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3연

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날 이스라엘과 경기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6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데 힘입어 10-1로 승리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선발로 나선 브라운 베오는 5회까지 삼진 7개를

뽑으며 1안타 1실점으로 막아 승리 투수가 됐다.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를 4-0으로 완파했다.

로널드 아쿠나 주니어는 솔로홈런을 비롯해 3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베네수엘라 타선을 이끌었다.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는 12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 1위를 놓고 격돌한다.

C조 2위를 차지해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은 14일 D조

1위와 8강에서 맞붙는다.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의 맞대결에서 패하는 쪽은 8강에서 C조 1위 일본을 상대해야 하므로 서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D조 경기가 8강 장소인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 따른 체력 부담은 한국이 더 크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경기 후 하루를 쉬며 8강전을 치르는 등 일정이 빡빡하다.

연합뉴스

도민체전 10km 단축마라톤 3000명

도체육회 동호인 대상 16일부터 선착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오는 5월 8일 열리는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부 참가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도체육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읍·면·동 대항은 각 읍·면·동체육회와 읍면동주민센터, 동호인대항은 도체육회 회원종목 단체를 통해 신청된다.

도체육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육상 10km 마라톤도 읍·면·동 대항과 일반인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을 별도의 참가신청 사이트(<https://jejusportsf.kr/marathon>)를 통해 16일부터 접수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학교별로 신청접수한다.

올해 도민체전은 5월 8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전진'이

라는 표어에 맞게 65개 경기장에서 5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제주도체육회는 올해 도민체전을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체전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인과 도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체육회는 도민체전 활성화를 위해 12개 종목(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씨름, 야구소프트볼,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민속경기-줄다리기, 민속경기-줄넘기)에서 읍·면·동 대항 세부 종목을 변경했다. 또 그동안 경쟁심에 의한 부상 위험이 큰 육상 세부 종목(400mR, 800mR)을 제외하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축 마라톤(10km)을 편성했다.

제주도체육회 신진성 회장은 "올해 도민체전은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문화와 스포츠 축제의 장에서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많은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석기자 yswi1968@ihalla.com

2026 KBO리그 시범경기 내일 시작

24일까지 팀당 12경기

한국 야구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7년 만에 2라운드에 진출한 가운데 KBO리그는 45번째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2026 KBO리그는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팀당 12경기, 총 60경기의 시범경기를 치른다.

개막일에는 5개 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이천),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대전),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주), kt wiz-롯데 자이언츠(부산), LG트윈스-NC 다이노스(마산) 경기가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는 각 팀 홈구장 공사로 인해 제2구장 등에서도 개최된다.

연장전과 더불어는 치르지 않고 우전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

편성하지 않는다.

시범경기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가 모두 출전할 수 있으며, 엔트리 인원 제한이 없다.

이번 시범경기에서는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수비팀은 포수와 투수를 제외하고 내야 휴 경계 내에 최소 4명의 야수를 뒤야 하고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한다.

시프트 제한 규정을 위반한 내야수가 인플레이 타구를 건드리면, 공격팀은 타자주자의 1루 출루 및 주자의 1개 베이스 진루 혹은 플레이 결과 유지 중 한 가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투구 간격인 '피치 클록'은 지난해보다 2초씩 줄어든다.

주자가 없으면 중전 20초에서 18초로, 주자 있으면 25초에서 23초로 단축된다.

연합뉴스

축 임
CONGRATULATIONS

제12대 제광회 회장



배승배

제12대 제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재 서귀포시 전남도민회
회장 장은술 외 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12대 제광회 회장



배승배

제12대 제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광회 회원 일동

축 임 용
CONGRATULATIONS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변영진
(부: 변창환 · 모: 공명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주변씨 지훈후손 종친회 일동

축 임 용
CONGRATULATIONS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변영진
(부: 변창환 · 모: 공명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주변씨제주도종친회
회장 변규암